

The Combination of Frame Analysis and Q Methodology in Public Conflict Research

Jonghwan Eun[#], Eun Yung Cho⁺

Research Institute for Coexistence & Collaboration,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86 Daehakro, Jongno-gu, Seoul, Korea

Abstract

Public conflict has been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more complicated and sharpened by social change. Unlike the past, a growing attention is now given to conflict resolution through agreement and negotiation between stakeholders. The first and important task for conflict resolution would be to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conflict situations. There is an increasing need of research in understanding of the subjectivity of stakeholders as well as the objective conditions of conflict. This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frame analysis and Q methodology in public conflict researc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firmed that frame analysis and Q methodology are theoretically combinable and methodologically complementary, which suggested a more complete study by combining frame analysis and Q methodology when exploring subjectivity in public conflict research.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methodology for exploring and analyzing the phenomenon of public conflict based on subjectivity.

Key words: public conflict research, frame analysis, Q methodology

1. 서론

공공갈등은 많은 사람의 이해와 욕구들이 동시에 충돌하는 현상이며, 사회적 영향력이 넓어 학자들의 이론적·실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Carpenter & Kennedy, 1988; Dukes, 1996; Lee, 2011; Jung, 2010). 갈등은 이해관계자들의 행동과 의사소통 상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상황을 구조화하고 분석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

의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갈등이 발생하면 누구나 갈등 해결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유기체적인 갈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갈등이 재발하거나, 갈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남아 있기도 하며 이에 새로운 갈등과 소외를 낳는 경우도 존재한다.

초기 공공갈등 연구에 관한 이론은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갈등의

[#] The 1st author: Jonghwan Eun, Tel. +82-2-3668-4289, Fax. +82-70-4325-3088, e-mail. jo.eun3299@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Eun Yung Cho, Tel. +82-2-3668-4237, Fax. +82-70-4325-3088, e-mail. choeunyung@gmail.com

주체 간 이해(interest)가 합리성에 기반을 두어 조정되고, 합의안이 도출되어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사례(예.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 갈등), 법·제도적인 합리성에 기초하여 갈등을 증폭시킨 사례(예. 밀양 송전선로 갈등) 등의 등장으로 합리성에 의존하여 공공갈등을 이해하고 해소하려는 접근은 한계에 부딪혔다. 이후 공공갈등의 연구는 기저에 존재하는 인간의 주관성에 관한 관심으로 옮겨졌다.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은 이해와 실익에 관한 입장의 차이이며, 입장의 차이는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사고방식에 따라 드러날 수 있다(Fisher & Ury, 1981). 즉, 갈등은 단순히 이해관계의 조정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서 당사자 간 주관의 충돌로 빚어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갈등 연구에서 주관의 충돌을 분석하고 탐구하는 이론을 구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한 쟁점으로 등장하였다(Hammond, 1996; Rein & SchÖn, 1994; Shim & Kim, 2011).

주관성은 주로 언어 행위를 통하여 드러나며, 이에 갈등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Lim, 2011). 의사소통의 핵심도구인 언어적 행위(communication)와 텍스트는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문화적 배경 등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이에 인간의 주관적 인식체계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¹⁾.

상대방 인식과 가치에 대한 파악과 이해는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 갈등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속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석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공공갈등 연구에서도 주관성에 관한 이해는 핵심적인 갈등 해소의 실마리로 기능하고 있다. 주관성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인간이 가진 인식의 차이에 관한 관심이 증

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레임 연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Kaufman, *et. al.*, 2003; Shim & Kim, 2011).

본 논문은 공공갈등 연구에서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적 방법으로 Q방법론과의 결합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으로 구분된다. 질적 접근은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에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양적 접근은 객관적이지만 의미 있는 연구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Shim & Kim, 2011). Q방법론은 이러한 비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프레임 이론을 통해 구성된 Q진술문과 이를 통한 유형의 객관적 도출은 연구의 과학성을 높인다. 또한, Q연구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선호 표출은 실질적 갈등 해결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프레임 연구와 Q방법론의 이론과 실재를 국내 공공갈등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프레임 연구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후 두 개의 연구방법론의 탐색을 바탕으로 프레임 연구와 Q방법론의 특성을 파악하고, 어떠한 지점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역할 할 수 있는지 이론과 방법론적 측면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프레임 연구의 관점에서 Q방법론을 결합하는 것의 시사점과 결합 가능성, 반대로 Q방법론 내 프레임 연구를 도입하는 것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Q방법론이 프레임 연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끝으로, 프레임 연구와 Q방법론을 결합하여 공공갈등 연구를 진행하였을 때 연구의 완결성을 위해 중요하게 다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최근 새로운 일왕의 취임을 맞이하여 그 호칭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다(Hankyoreh, 2019. 10. 21.). “나루히토 일본왕의 호칭은 ‘일왕? 천황? 일황?’. 일본의 왕을 부르는 호칭이라는 본질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과 일본인의 일왕에 대한 인식의 격차는 상당하다. 이것은 호칭에서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일왕으로 호칭하지만, 일본에서는 천황이라고 표현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에서는 일왕으로, 일본에 대한 공식문서에는 천황으로 표현하여 상대의 호칭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개인의 주관성이 언어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현상이다.

II 공공갈등 연구 내 프레임 연구의 이론과 실제

1. 프레임 연구의 특성과 공공갈등 연구

프레임 연구는 1970년 사회학자 Goffman(1974)이 개인의 인식 프레임을 과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전환하여, 프레임 연구의 개념으로 제시하면서 시작된다. 그는 “하나의 상황에 대한 정의가 일련의 사건들과 자신의 주관을 조직하는 개인의 원칙에 따라 구축되는 것(Goffman, 1974: 10-11)”을 가리켜 프레임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프레임은 특정한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각자가 가진 주관적인 인식이 결합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며, 프레임을 실제의 모습과 인식을 연결하는 기본적인 인지구조(cognitive structure)로 정의한다. 또한, 프레임은 개인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정의와 주관적인 참여(subjective involvement)가 이루어진다고 본다(Shim, 2011; Shim & Kim, 2011; Kang & Choi, 2018).

프레임은 인식(perception)과 차별화되며, 인식과 행동, 언어적 표현을 형성하는 인지적 구조이자 틀을 말한다. 프레임은 외부의 사건과 개인의 속성, 기존 경험의 누적을 통해 형성된다. 이에 프레임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 직면한 갈등 상황을 해석하는 데 적용하는 인지적 틀”로 정의할 수 있다(Kim, 2017; Williams & Benford, 2000).

프레임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서로 다른 정의를 가진다(Steinberg, 1999; Dewulf, et. al., 2005; Putnam & Holmer, 1992; Shim & Kim, 2011). 그러나 일반적으로 프레임은 네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프레임은 특정 상황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의 주관적 관점을 반영한다. 프레임은 개인이 가진 복잡한 가치를 통합하는 인식적 구조(integrating structure)로 볼 수 있다. 둘째, 프레임은 확인 가능한 특성이 있어야 한다. 개인의 프레임을 드러낼 때 개념적, 언어적 특성이 있어 연구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프레임이 연구자의 상상이면 안된다(Cappella & Jamieson, 1997). 셋째, 프레임은

쉽게 변화하지는 않지만, 고정된 것은 아니며, 진화할 수 있다(Chong & Druckman, 2007). 넷째, 프레임 간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각 프레임은 배타적인 속성을 지녀야 한다(Shim & Kim, 2011).

앞서 살펴본 프레임의 특성 중 주관적인 관점, 유동적인 특성은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갈등 연구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확인 가능한 특성은 갈등을 저감하여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프레임 연구가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갈등 연구의 관점에서 프레임은 이해관계자가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Gray, 2004)을 의미하기도 하며, 갈등 상황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객관적인 대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도구(Kauffman, et. al., 2003)로 정의하기도 한다.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저마다 지닌 인지적 프레임에 맞추어 상황을 재해석하고, 각자 나름의 프레임을 사용하여 상황을 정리한다(Lewicki, et. al., 2003). 갈등 연구에서 프레임은 갈등 상황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갈등은 상황과 이슈에 대하여 사람들 사이의 주관적 인식의 차이와 충돌에서 발생한다(Hammond, 1996; Schmidt & Kochan, 1972; Deutsch, 1973). 즉,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한다. 갈등 상황에서 프레임은 구성주의적인 관점(constructivist perspective)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갈등 상황을 이해하는 ‘인지적인 틀’로서 개인에서 집단으로 인식이 확장되는 것을 말한다.

공공갈등 연구에서 프레임 분석 방법의 도입은 주관적 충돌, 즉 갈등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사고의 틀, 다시 말해 이를 해석하고 언어를 표출하며 행동을 결정짓는 인간의 사고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프레임 연구를 통해 갈등의 원인을 확인하고,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시발점

2) 프레임의 확인 가능한 특성은 프레임을 분석하는 연구가 언론학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었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갈등 연구 내 프레임 연구는 갈등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지닌 주관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었다. 갈등의 원인 중 하나인 이해관계의 충돌이 개인의 주관적 인식으로 인한 것을 근거로 프레임 연구는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프레임의 관점에서 개인이 객관적 현상을 정리하고 해석하는 의미부여 방식에서 동일한 현상이 갈등 상황으로 규정되기도 하고, 아닌 것으로 규정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Hammond, 1996; Shim, 2011).

이처럼 프레임 연구를 활용한 접근은 공공갈등 연구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갈등 연구 내 프레임을 확인하고 측정할 것인지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된 연구의 경향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갈등 연구 내 프레임 연구를 적용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프레임 연구 방법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공공갈등 연구 내 프레임 연구의 적용

본 연구는 공공갈등 연구 내 프레임 연구에 기초한 국내 문헌을 수집하여, 공공갈등 연구에서 프레임(frame), 프레임링(framing), 리프레이밍(reframing)³⁾, 틀짓기 등 관련 개념이 연구에서 어떻게 이론적으로 도입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학술DB(DBpia, Kiss, Google Scholar) 내 국내 문헌 중 제목과 키워드에 ‘프레임’, ‘프레임링’, ‘리프레이밍’, ‘틀짓기’를 검색하였다. 검색된 논문이 ‘공공갈등’과 관련된 논문인지를 연구자 2명이 판단하였다. 검색은 학술DB에서 검색 가능한 1901년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이를 통해 총 62개의 선행연구가 검색되었다⁴⁾.

공공갈등과 프레임 연구를 연결한 최초의 연구가 등장한 것은 2001년이였다. 총 62건의 연구 가운데 언론학·신문방송학 분야의 연구논문이 24건(39%)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행정·정책학 분야의 연구가 21건(34%), 이외 사회학 분야가 10건(16%), 기타(기록물 관리, 복합학 등) 분야가 7건(11%)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공갈등 연구 내 프레임 분석은 크게 연역적 접근과 귀납적 접근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역적 접근은 프레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추출된 프레임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해당 사례나 연구주제를 분석하여 프레임을 확인하고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연구 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연역적 접근의 첫 번째 단계는 이론에 근거하여 프레임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다. 프레임 구조는 갈등의 모든 상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넓은 범위에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각 프레임의 구조는 상호배타적으로 구성되어, 특정한 상황의 범주화가 가능해야 한다(Shim & Kim, 2011). 이후 구조화된 프레임 속에서 실제 갈등 상황을 유형화하는 구체화 과정을 거친다. 이는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와 유사한 단계로 볼 수 있다.

프레임을 활용한 접근의 핵심은 동일한 현상을 서로 다르게 인지하고 해석하는 이유가 인간마다 다른 프레임에 있다는 것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언어 행위와 언어구조를 분석하는 것으로 프레임 분석은 구체화 된다. 이에 연역적 접근에서 프레임의 구조화는 대부분 분석자료의 특정한 언어나 문장에 대한 언급(빈도) 그리고 정확한 의견(견해)에 기반을 둔다. 이후 연구자는 해당 프레임과 분석 대상(갈등)을 분류 또는 코딩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후 분류된 갈등 상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준의 분석을 진행한다.

3) “프레임”, “프레임링”, “리프레이밍”은 프레임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프레임(frame)이 전반적인 인식의 틀을 지칭한다면, 프레임링(framing)은 프레임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인간은 주어진 정보를 구조화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고 실행한다(Kaufman, et. al., 2003). 지속적인 프레임링 과정을 거쳐 형성된 프레임이 어떤 사건이나 내면의 변화를 통해 중대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리프레이밍(reframing)이라 한다. 리프레이밍은 갈등의 변화양상과 큰 관련성이 있다(Shim & Kim, 2011: 173-174).

4) 본 연구와 유사한 검색 방법을 통하여 Shim & Kim(2011)은 총 31건의 연구논문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검색 가능한 19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구를 검색하였고, 이후 약 10년간 이전까지의 연구의 수량만큼 연구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은 대부분 언어 텍스트를 분석하는 텍스트 분석기법(text analysis)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주요한 분석 결과는 구조화된 프레임에 관한 빈도, 언어 간 관련성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분석으로 도출되었다.

요약하면, 연역적 접근 연구는 이론적으로 구성된 프레임 개념을 바탕으로 이를 조작화한 후 측정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보완적으로 프레임에 대한 타당성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프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인터뷰 등을 통해 프레임 분석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귀납적 접근 연구는 갈등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프레임을 구조화하는 것을 말한다. 연역적 접근과 다르게 특정한 갈등 사례를 기반으로 프레임을 구성한다(예. 갈등 상황에 관한 기사를 분석할 경우, 기사의 주제를 특정한 프레임으로 분류하는 경우이다). 귀납적 접근 연구에서는 사례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분석틀을 구축한다⁵⁾. 귀납적 접근 연구에서는 갈등 상황과 구조화된 프레임과의 이론적 연관성을 상향식(bottom-up)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을 많이 활용하는데, 대표적인 접근은 토대이론(ground theory)⁶⁾적 접근이다.

귀납적 접근 연구는 사례에 기반하여, 프레임을 구조화하기에 사례를 심층으로 보여준다는 데 장점이 있다. 그러나 내적 타당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귀납적 접근에 따른 프레임 구축은 사례에 기반을 두어 많은 경우 프레임 구조가 이론적으로 가져야 할 속성을 저해한다.

첫 번째 문제는 프레임구조의 완결성이다. 토대이론에 기반을 둔 프레임 구성은 모든 상황이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문제를 지닌다. 다시 말해 분류되지 못하기에 “기타” 범주로 구분되며, 이로 인해 연구의 완결성이 떨어지게 된다. 두 번째 문제는 분류의 중복 가능성이다. 갈등사례는 특정한 프레임에 전적

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관점과 해석에 따라 또는 원자료의 속성에 따라 2개 이상의 프레임이 중복되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레임의 중복은 상호 배타적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져오며,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연역적 접근 연구 역시 한계를 지닌다. 대부분 공공갈등 내 프레임 분석을 적용한 연구는 프레임 이론에서 특정한 사례분석으로 연결된다. 즉, 특정한 ‘프레임’에 해당하는 용어들을 할당하고 이에 대한 언어의 빈도를 바탕으로 측정한다. 그러나 이 조작화의 과정은 연구자의 전문성과 주관에 의존하기에 검증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 연역적 접근의 대부분 연구는 연구자들의 판단에 근거하여 해당 프레임과 그 프레임을 확인하는 용어를 구성한다. 결국, 연구자의 역량에 의존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일부 연구의 경우 이론으로부터 추출된 프레임과 실제 사례에 대한 프레임 도출과정에 명확한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는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에서 진행하였던 연역적·귀납적 접근 방법의 한계는 공공갈등 연구에서 프레임 분석의 적극적인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프레임 분석 방법의 한계점은 공공갈등 연구의 목적을 돌이켜보게 한다.

공공갈등 연구는 대표적으로 갈등 이론의 구축과 공공갈등 해소에 대한 시사점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공공갈등 연구에서 프레임 분석을 수행할 경우 이론에서 실제 사례분석으로 연결되는 단계의 조작화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한다면, 해당 사례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할 뿐 아니라 이에 기반한 이론에 대한 기여점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 즉, 해당 갈등 사례에 대한 이론적·실질적 시사점 제공이라는 공공갈등 연구의 본질적인 목표를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5) Yun & Lee(2010)의 연구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MBC와 KBS 보도를 해당 사례의 보도가 주로 드러내는 주제를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7개의 프레임을 범주화하였다.

6) 토대이론(grounded theory)은 Glaser & Strauss가 개념화한 것으로, 체계적이고 귀납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이론 말한다(Educational Evaluation Thesaurus, 2004).

그럼에도 국내 공공갈등의 연구는 대부분 사례연구(Ha, 2018; Kim, *et. al.*, 2019)임을 고려할 때, 갈등 사례연구에서 프레임 관점의 이론 도입은 해당 사례에 대한 개별분석을 넘어 공공갈등 연구의 일반 이론을 구축한다는 점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공공갈등 연구에서 프레임 이론은 중요하지만 적절한 분석방법론은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Shim & Kim, 2011). 또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프레임 분석이 공공갈등 연구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갈등 연구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주관적 생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주관성을 탐색하는 방법에 관한 방법론인 Q연구방법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Steelman & Maguire, 1999; Brown, 1980). 이에 본 연구는 공공갈등연구에서의 Q연구방법론의 이론과 실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공공갈등연구 내 Q방법론의 이론과 실제

1. Q방법론의 특성과 공공갈등연구

Q방법론은 Stephenson(1935)⁷⁾의 요인분석에 관한 편지와 “The Study of Behavior”(1953)를 출판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Watts & Stenner, 2005).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을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법이다. 1953년 당시 객관적 과학주의가 시대의 흐름이었으나, 이에 반해 Stephenson은 주관성 또한 과학적으로 연구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요인분석은 인간을 보편적인 존재로 가정하고 변수 간 유사한 패턴을 추출해서 변수를 축약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반면 Q방법론은 인간을 각기 다른 신념과 의견을 지닌 차별화된 주관성을 지닌 존재로 가정한다(Brewer, *et. al.*, 2000: 256). Q 방법론은 주관성 간 차이를 전제로 응답한 주관성 간 유사한 패턴을 추출하여 유사한 주관성을 축약해 표현하는 방법이다.

Q방법론은 요인분석의 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자의적 분류로 인한 편향(bias)과 비객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Brown, 1980; Kim, 2008). 이에 Q연구자들은 이 방법을 주관성을 연구하는 과학적 방법이라 표현하기도 한다(Kim, 2008; Kim, 2010).

Q연구는 자결적 주관성(operant subjectivity)을 가진다(Brown, 1993). 자결적(operant)은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며, 주관성은 인간이 가진 느낌, 의견, 감정, 태도를 의미한다. 자결적 주관성은 인간의 주관이 스스로 드러나는 상태를 말한다. 자결적 주관성을 드러내는 Q방법의 결과물은 일반적인 사회과학 이론⁸⁾과는 다른 해석학(hermeneutics) 입장을 견지한다(Durning, 1999: 396).

Q연구의 결과물은 간행태주의(inter-behavioral ism)적 관점에 기반한다(Kim, 2010; Stephenson, 1982). 간행태주의는 인간의 행태와 심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과 인과관계가 아닌 심리적 장(psychological field)의 인간 사이 상호작용에 주목한다(Hayes & Fredericks, 1999). 기존의 사회과학은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지만 간행태주의 관점은 특정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들 사이 상호작용 결과물을 드러내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한다.

자결적 주관성과 간행태주의적 성격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과 연결된다(Kim, 2010). 즉, Q방법론은 시점과 응답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주관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불확정적이다. 그러나 상황과 시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고 해서 Q결과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Stephenson은 James의 실용주의적 심리철학에 영향을 받았다. James는 실제적 사고와 이행적 사고를 구분하였다. 실제적 사고가 형이상학적 사고라면 이행적 사고는 형이하학적 사고이다. 그러나 양자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닌다. 다시 말해 경험과 상황에 대

7) 요인분석의 선구자인 Spearman의 제자로, 요인분석에 관한 편지는 1935년 The Nature에 보낸 논문이다.

8) 일반적인 사회과학은 인간을 포함한 사물을 객관적으로 파악·측정하고 연구자가 전인적 관점에서 보편타당한 이론과 증거를 제안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한 이행적 사고의 누적을 통해 실제적 사고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Q방법론의 연구 결과는 상황에 대한 주관의 이행적 사고를 드러낸다. 이에 불확정적일 수 있지만, 실제적 사고와 끊임없이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니며, 우리가 알고자 하는 형이상학적 일반원리의 단면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Q방법론의 불확실성의 원리(principle of uncertainty), 상호보완성의 원리(complementarity principle)는 양자역학의 물질세계에 대한 코펜하겐 해석의 방식과 Q방법론의 철학이 일치한다고 평가받는다(Brown, 1993; Kim, 2010).

Q방법론의 첫 번째 이론적 기초가 양자역학이라면, 두 번째 중요한 이론은 집합체 이론(concourse theory)이다. 집합체(concourse)는 주관성의 총체를 의미한다. Q연구는 주관성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다. Q방법론은 일반적인 사회과학 분석 단위(개인, 조직, 국가 등)의 저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관성들의 집합인 집합체에 주목한다. 집합체는 공유 가능하며, 전달 가능한 주관성으로 구성되고, 인간이라는 독립체를 통해 표출되는 주관성 간 관련성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Q방법론이다.

Q방법론은 이러한 이론에 토대를 두고 주어진 상황, 개인의 성향, 실제적 사고와 이행적 사고 간 상호작용 속에서 주관성을 드러낸다. 드러낸 주관성은 상황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불확정적이다. 그러나 실제적 사고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이론과 연구가 추구하는 지식과 본질 추구와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는 주관성을 표현하는 Q방법론이 어떠한 관점에서 공공갈등의 연구와 실제에 기여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프레임 연구가 이론에 기초하여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Q방법론은 연구방법론을 통해 특성이 드러나며 비교적 정형화된 연구 과정이 존재

한다. Q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⁹⁾.

첫 번째 단계는 연구주제에 대한 집합체(concourse)수집이다.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주제는 주관적 인식이 2개 이상 분류할 수 있고 참여한 대립이 존재하는 문제이다. 이에 주관적 의견들의 총체를 수집한다. 주관성을 수집하는 단계로, 사실이 아닌 사실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을 수집한다. 이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선행연구, 뉴스, 인터뷰 등 논리적 추론을 통해 수집 가능한 모든 의견을 모아낸다.

두 번째 단계는 집합체로부터 대표할 수 있는 의견을 추출하는 Q표본 추출과정이다. 모든 집합체를 대상으로는 한정된 자원(비용, 시간 등)뿐 아니라 인간의 인지적 한계가 존재하기에 연구주제를 대표할 수 있는 진술문들만 추려내는 과정을 수행한다¹⁰⁾. 표본추출은 구조적 방법과 비구조적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조적 방법은 집합체의 구조가 확정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활용하고, 비구조적 방법은 연구주제가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탐색적 연구에 적절하다(Kim, 2008).

세 번째 단계는 추출된 Q진술문에 응답할 P셋¹¹⁾의 선정이다. P셋은 일반적인 설문조사에서 변수로 기능하기에 연구의 목적(특정한 주제에 대한 주관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유의미한 P셋을 의도적(intentionally)으로 선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P셋은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관계 또는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이 적절하다.

네 번째 단계는 Q진술문에 선정된 P셋이 응답하는 Q분류(Q sort)이다. Q분류과정은 P셋의 주관성이 드러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P셋은 주어진 Q진술문에 대해서 자신의 주관적 생각과 가장 일치(동의)하는 문장에서부터 주관적 생각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생각

9) 연구 방법에 관한 자세한 소개는 국내 문헌 Kim(2010), Kim(2008), 해외 문헌은 Brown(1980), Watts & Sterner(2005)를 참고하기 바란다.

10) 일반적인 사회과학 연구 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일반적인 사회과학에서 표본은 일반적인 인간을 가정하고 추출하는 데 비하여 Q방법론에서는 주관성이라는 모집단으로부터 대표적인 진술문을 추출하는 것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11) 일반적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를 말하며, Q연구방법론에서는 P셋으로 지칭한다.

(부동의)까지 서열(order)을 매겨 분류한다. Q분류는 진술문카드를 활용하며, P셋은 진술문을 계속 비교하여 자신의 주관성을 자결적으로 드러낸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수집된 응답을 바탕으로 Q분석(Q analysis)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P셋의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또는 센트로이드분석(centroid analysis)을 통해 P셋간 유사성과 차이점이 수학적으로 계산되고 요인회전(직각회전 또는 사각회전)을 통해 요인으로 분류된다. 잠재적 변수(latent variable)인 요인은 해당 주제에 관해 구별되는 주관성을 묶음이다. 주관성의 묶음에서 요인별로 동의하는 문장과 동의하지 않는 문장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요인 간 차이와 공통점은 수학적으로 계산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연구자의 주관이 최소한으로 개입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각 요인의 특성을 연구하고 연구주제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을 서술한다.

2. 공공갈등연구 내 Q방법론의 적용

갈등연구에 있어 Q방법론은 요인 간 차이와 유사점에 관한 정보가 응답자의 객관적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Q연구는 주관성이 분석 대상이며, 주관적 생각이 비슷한 응답자들을 하나의 공통된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에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해석 없이도 응답자들 간 주관적 생각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갈등에서 이해(interest)가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갈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갈등연구 내 Q방법론을 활용한 국내 문헌을 수집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를 확인하였다. 학술DB 내 국내 문헌 중 제목과 키워드에 ‘Q방법론’, ‘Q연구’, ‘Q연구방법론’ 등을 검색하였으며, 검색된 논문이 ‘공공갈등’과 관련된 논문인지 연구자 2명이 판단하였다. 검색은 학술 DB에서 검색

가능한 1901년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이를 통해 총 13개의 선행연구가 검색되었다.

총 13건의 연구 가운데 행정·정책학 분야가 10건(77%), 기타(조경학·Q전문저널·도시계획)분야가 3개(23%)로 대부분 행정·정책학 분야의 논문이다. 선행연구들은 Q방법론의 개략적 절차에 맞게 연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집합체에 관한 탐구를 명시적으로 밝힌 연구가 부족하다. 집합체를 언급하거나 구체적으로 담론을 수집하는 과정을 밝힌 연구는 4개이다. 집합체는 Q연구에서 중요한 주관성을 추출(sampling)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즉, 진술문이 해당 연구 문제를 적절하게 대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집합체 수집과정과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집합체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내용에 관하여 밝히지 않는다면 Q연구가 해당 연구주제에 관한 주관성을 충분히 대표하는지 의심을 받게 된다(Brown, 1980). 집합체의 수집과정이 없다는 것은 대다수 선행연구의 해당 주제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각 연구주제의 주관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둘째, Q진술문을 추출하는 분류틀(categorizing)의 구성은 연구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추출과정에서 연구들은 구조적 또는 비구조적 방법을 활용한다. 구조적 방법을 통해 진술문을 추출한 연구들은 해당 연구주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적절한 분류틀을 만들어 진술문을 추출 또는 구성한다. 13개 중 6개의 논문이 구조적 방법을 통해 분류틀을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분류틀을 구축하는데, 프레임 또는 프레이밍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Q샘플을 구성한 경우는 2개에 불과하였다.

셋째, 모든 연구논문에서 갈등 이슈에 관한 직접 이해관계자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Q연구의 특성상 P셋은 변수의 기능을 한다. 이에 갈등의 전개 과정을 분석한 후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적절한 P셋을 선정해야 한다. 이러한 의도적이고 적절한 P셋의 선정은 연구의 성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시간적 간격을 두고 Q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는 없었다. Q연구는 특성상 불확실성과 변동 가능성을 전제한다. 이에 시간의 흐름과 외생적 사건으로 인한 인식의 변화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 연구주제다. 공공갈등 역시 유기체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사건이 시간에 영향을 받아 역동적으로 변화하기도 한다¹²⁾. 이에 시간의 간격을 두고 같은 갈등 이슈를 주제로 2회 이상 인식유형을 분석한다면 더 풍부한 이론적·실질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갈등을 해소하는 등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갈등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갈등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생각과 속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해관계자들의 주관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Q방법론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도입은 아직 부족하다. 공공갈등 연구에서 이해당사자의 주관성을 분석하여, 갈등을 파악하고 유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Q방법론의 도입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III. 프레임 연구와 Q방법론의 결합

1. 프레임 연구에서 바라본 Q방법론

공공갈등에서 프레임 연구는 갈등 상황을 자료에만 의존하여 분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황을 해석하는 사고의 틀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유용하다. 프레임 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현상이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해 갈등이 유발되는 점을 설명하기 적절하다. 특히, 같은 정책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한 상호충돌이 발생하는 공공갈등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레임 연구의 타당성과 이론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프레임임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엄밀한 방법론이 필요

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레임 연구는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으로 진행된다. 귀납적 방법은 연구자의 자의가 개입되고, 특정한 사례에 국한되기에 일반화가 어렵다. 연역적 방법은 이론으로부터 구조화되기 때문에 논리적 엄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언어분석 또는 네트워크 분석으로 드러나는 언어들로 프레임의 논리적 관련성을 엄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연역적으로 도출된 프레임 간 관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프레임 연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Q방법론을 적용해볼 수 있다. Q방법론을 도입하면 첫째, 귀납적 방법의 프레임 연구에서 문제가 되는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편의(bias)를 제거할 수 있다. Q방법에서 도출되는 인식의 유형은 유사한 주관적 인식유형으로서 해당 연구주제를 바라보는 전반적인 가치체계 또는 사고의 틀이다. 이러한 사고틀(frame)은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Q분류를 통해 드러난 P셋들의 주관적 선호를 바탕으로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드러난다. 이에 연구자의 선호나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최소화되며, 프레임 연구의 편의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Q방법론은 프레임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인 이론과 측정 사이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다. Q방법은 해당 연구주제에 대한 주관적 의견, 느낌 등으로 구성된다. Q진술문 구성시 각 프레임을 대표할 수 있는 문장을 적절하게 구성한다면 차이가 해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im & Kim(2011)은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갈등 프레임 분석을 위해 이론적으로 Lewicki, et. al.(2003)의 프레임 유형을 가져와 적용·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고, 자연언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프레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만약 동일한 연구주제에 Q방법론을 적용한다면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프레임인 ‘갈등관리 프레임-

12) 성주의 사드(THAAD) 배치 갈등의 경우 사드 배치가 발표된 이후 성주군과 배치 예정지가 가깝다는 이유로 성주군민 대부분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사드 배치 장소가 도심과 먼 곳으로 바뀌고 난 뒤에 성주군민들이 갈등을 대하는 태도는 변화하였다.

공동문제 해결' 프레임에 대표할 문장을 Q진술문으로 구성하면 된다. Q연구에서는 통해 진술문에 대한 서열이 매겨지고, 주관적 사고틀이 드러난다. 이에 사고틀에 대한 선호가 각 인식유형이 해당 문제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Q방법론을 활용한 프레임 분석은 이론을 대표할 문장으로 측정하는 프레임 연구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프레임 연구에서 Q방법론의 활용은 프레임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 Q분석의 결과는 각 유형이 선호하는 문장에서 선호하지 않는 문장으로 값이 나타난다. 동일한 문장에 대해 인식유형에 따라 다른 선호가 나타나는 결과값을 얻는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각 인식유형(사고틀)간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다.

기존의 프레임분석은 특정한 프레임을 확인한 후 프레임간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Q분석은 프레임 간 관련성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연구자의 자의를 배제함과 동시에 갈등을 해소할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원전 갈등상황에서 찬반이 구별되는 입장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이해관계자들의 Q분석결과 찬반이 확실하게 구별됨에 불구하고 갈등관리 방안이 토론을 통한 합의로 공통적이라면, 토론을 갈등해소기제로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레임 연구는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갈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프레임의 차이에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연구방법이다. 그러나 프레임분석에 있어 연구자의 자의성, 의견과 측정의 차이, 프레임 간 선호도 등을 측정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Q방법론의 특성이 이를 보완할 것으로 보고 보완점을 정리하였다. Q연구를 통해 선호를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 자의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론과 측정의 차이를 보완하고 각 프레임 간 위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2. Q연구에서 바라본 프레임 연구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을 서열로 측정하여 유사한 주관적 패턴을 요인분석의 방법을 기반으로 분류한다. 도출한 결과는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이 최소화된다는 점에서 과학적이다. Q연구는 주관성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적절한 방법론이다(Brown, 1995). 공공갈등은 첨예한 이해관계와 서로 다른 의견 대립의 현상이며, 이에 연구자의 자의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속내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Q연구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갈등의 연구에서 있어서 Q방법론 역시 프레임 연구와 마찬가지로 몇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 집합체를 충분히 탐구했다는 근거가 빈약하다. Q방법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집합체를 공고히 탐구한 후 다음 진술문을 추출해야 한다. 집합체를 적절하게 추출하지 않는 Q진술문은 연구의 이론적·실질적 기여가 어렵다. 둘째, 집합체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일관된 기준이 없이 연구자의 판단에 의존한다. 탐색적 연구가 아닌 선행연구가 충분한 연구에서도 집합체의 표본 추출시 연구자의 판단에 의존하여 구조화하여 추출하고 있다. 이는 반박 가능성과 다른 대안과의 비교 가능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셋째, P셋의 선정시 공공갈등의 주요한 이해관계자를 선정해야함에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연구가 존재하였다. 이는 갈등상황을 정확하고 다각도로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관적 인식의 변화를 탐구가 전혀 없었다. Q연구가 불확정성과 변동가능성의 특성이 있음에 불구하고, 공공갈등의 유기체성과 역동성을 반영한 연구가 전혀 없었다.

프레임방법은 앞서 설명한 네 가지의 Q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론이다. 프레임이론은 공공갈등 상황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사고틀 모두를 상호배타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프레임이론은 갈등상황 전체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좋은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먼저 Q방법을 활용한 공공갈등연구에서 집합체를 수집할 때, 프레임이론을 활용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집합체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반적인 Q방법론의 집합체 수집은 인터뷰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더 이상한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수집하는 과정으로 일종의 토대이론 방법론(ground theory)이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 수집된 결과가 해당 연구문제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집합체가 연구문제를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집합체 수집 과정에서 프레임 이론을 활용한다면 효율적이고 정제된 집합체를 수집할 수 있다. 인터뷰 결과로 얻어진 집합체를 프레임들에 맞춰 분류하고 채워나간 후 결여된 프레임을 채우기 위해 추가적인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러한 프레임분석 방법의 적용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합체를 수집할 수 있게 한다.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갈등연구에 Q방법을 적용해본다고 가정한다. 이해관계자를 분석하여 발굴하고,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사고틀을 수집한다. 인터뷰 내용을 프레임분석 연구를 통해 유형화하고, 이후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여 프레임을 중 빠진 부분에 관한 질문을 수행한다. 이는 반복적인 인터뷰의 집합체 수집보다 빈틈없는 집합체 수집이 가능하며,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프레임이론은 수집된 집합체에서 Q진술문을 추출할 때도 유용하다. 프레임이론은 갈등상황에 존재하는 사고틀 전부를 배타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Q진술문을 추출하는 구조적 틀이 될 수 있다. 이때 연구자는 자의에 근거한 구조적 분류틀을 구성하기 보다는 선행연구에 기반한 프레임 분류틀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설득력 있는 Q샘플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갈등연구에서 Q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적인 인식의 변화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때 프레임이론에서 주요한 프레이밍과 리프레이밍의 개념을 활용하여 연구를 구성한다면, 연구에서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론적 관점에서의 결합 가능성 모색

공공갈등 연구 내 Q방법론과 프레임 연구의 도입

은 이론적인 관점에서 결합이 가능하다. 먼저 두 개의 접근법 모두 인간의 사고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접근 방식이라는 점이다. Q연구는 모든 인간이 표준(standard)화되고 일반적이라는 20세기 초반의 과학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구별되는 인간의 주관성을 탐구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이다(Kim, 2008).

이러한 관점을 공공갈등연구에 적용하면 Q연구는 공공갈등 상황에서 특정한 하나의 입장 또는 옳다는 주장을 거부하고 구별되는 주관적 생각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탐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프레임 연구 역시 상황을 어떠한 사고의 틀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상반되는 의견과 행동이 도출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에 프레임 연구와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을 인정하고, 공공갈등에서 중요하게 기능하기에 이를 탐구하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또한 Q방법론과 프레임 연구는 불확실성과 변동가능성을 공유한다. Q방법론은 양자역학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으며 측정하는 순간의 상태와 조건과 응답자가 상호작용하며 주관성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주관성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상태, 조건, 응답자)가 변화하면 주관성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Kim, 2010). 프레임 연구 또한 프레임의 변동 가능성을 중요하게 다룬다. ‘프레이밍’과 ‘리프레이밍’의 용어를 중요하게 다루며, 이를 외부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프레임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탐구한다. 두 개의 방법론은 인간의 특성, 주관성을 전제로 한다. 두 방법론 모두 변화가 가능하고, 불확실한 마음의 비물질적 실체인 주관성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4. 방법론적 관점에서의 결합 가능성 모색

공공갈등연구에 있어 두 방법론은 서로 다른 접근법을 가진다. 프레임 연구는 전통적인 사회과학 연구방법에 맞게 양적접근법과 질적접근법으로 분류되어 있다(Shim & Kim, 2011). 선행연구에서는 프레임이론

을 양적으로 접근할 경우 측정에 있어 연구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질적 접근의 경우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Q방법론은 독특한 방법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양적 또는 질적 연구로 분류하기 어렵다(Watts & Stenner, 2005). 집합체의 구성이 중요하며, 집합체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한다면 진술문을 제대로 추출할 수 없어 연구의 가치가 저해된다.

이론적 관점에서 두 개의 방법론은 공통점을 보이며, 공공갈등에 적용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두 개의 방법론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프레임 연구와 Q방법론이 방법론적으로 서로 보완하여 공공갈등연구에서 이론과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갈등연구에서 프레임 연구와 Q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의 보완 가능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유리하다. Q방법론을 활용하면 해당 프레임을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어 프레임에 대한 서열(order)로 주관성을 드러내게 된다. 이는 프레임 측정에 있어 가장 난제인 ‘무엇이 해당 프레임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연구의 과학성을 높일 수 있다.

프레임과 프레임 측정간 타당성이 확보되면, 이를 토대로 유사한 주관적 인식유형을 분류하게 된다. 기존의 프레임 분류는 연구자의 전문성에 의존하였지만, Q방법론에서의 인식유형 분류는 드러난 주관성의 선호관계에 대해 요인분석의 방법을 차용하여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응답자의 주관적 성향을 객관적으로 드러낸 인식유형은 공공갈등의 프레임에 기반한 진술문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도출된 Q진술문은 갈등 당사자들이 어떠한 프레임을 기반으로 공공갈등을 바라보는지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둘째, 프레임이론의 탄탄한 토대는 Q연구에 있어 난점인 집합체 수집과 분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기존 공공갈등연구에서 Q방법론은 집합체 수집과정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연

구자의 전문성에 의존하였다. 또한, 인터뷰 통한 수집의 경우에도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난점을 보완하기 위해 프레임이론을 활용할 수 있다. 프레임이론의 망라성과 상호배타적 특성에 기반하여 집합체를 수집한다면 과학적 엄밀성을 확보하기가 유리하다. 공공갈등의 이슈에서 해당 프레임에 관한 의견과 생각을 빠짐없이 수집한다면 연구문제에 대한 집합체를 구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프레임을 대표할 수 있는 진술문을 추출하여 연구의 엄밀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공공갈등의 유기체적인 성격과 역동성을 설명할 수 있다. 주체 간 상호작용과 외부사건 조건의 변화는 주관을 끊임없이 변화시킨다. 이를 프레임이론에서는 프레이밍, 리프레이밍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Q방법에서 이러한 이론에 기반하여 공공갈등 현상을 역동적으로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과정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인식변화는 프레임 연구와 Q방법론을 통하여 상호보완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의 홍수는 인간 사고방식을 탐구하는 데 많은 원초적 자료를 제공해 줌과 동시에 통제되지 않는 갈등을 만들기도 한다. 실제 불확실한 환경, 네트워크 사회 등은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를 발생하게 하였으며, 이는 갈등으로 표출된다. 갈등을 관리하는 데 갈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공갈등연구는 문헌을 통한 사례분석,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갈등의 유기체적인 특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공공갈등을 바라보는 인간의 사고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갈등을 연구하는 데 점차 중요해지는 인간의 주관적 인식을 탐구하는 방법으로 프레임 연구와 Q방법론의 결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에

국내문헌을 중심으로 프레임 연구와 Q방법론의 특성을 확인하고, 실제 공공갈등 연구에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프레임 연구는 이론을 중심으로 발전된 분석틀로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할 방법론에는 다양한 분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방법론적으로 프레임을 어떻게 측정하고 검증할 것인가의 문제, 프레임이론과 방법의 연결고리가 미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Q방법론은 방법에 치중하여 공공갈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이론과 방법이 연결되는 핵심고리인 집합체의 구성과 표본추출의 과정이 논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프레임이론은 프레임을 형성하는 동적인 상황을 중시한다. 즉, 프레임링(framing)과 리프레임(reframing)을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한다. Q연구에서도 인간의 주관성이 불확정적이고 불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Q연구는 해당 시점의 특정한 인식의 순간을 포착하는 데 의의가 있다(Brown, 1980).

공공갈등연구에 프레임 연구와 Q방법론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연구과정을 거친다. 먼저 연구는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해당 연구주제에 적절한 프레임이론을 구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프레임이론에 맞추어 집합체를 수집한다. 프레임에 맞게 집합체를 다양하게 수집한 후 각 프레임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진술문을 가공하여, Q진술문을 추출한다. 구성된 Q진술문에 응답할 적절한 P셋을 선택한다. P셋의 Q분류를 받은 후 Q분석을 거친다. 이때 연구주제인 공공갈등에 외부적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갈등의 상황이 바뀐 경우 리프레임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Q진술문을 구성하여 다시 동일한 P셋을 대상으로 Q분류와 Q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가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적절한 프레임이론을 설정해야 한다. 프레임이론을 바탕으로 집합체를 수집하는 것이기에,

이론이 적절하게 설정되지 못하면 집합체의 타당성이 떨어지고 이는 부실한 연구결과로 이어진다. 둘째, 구성된 집합체로부터 추출된 Q샘플이 해당 프레임을 적절하게 대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Q샘플은 해당 프레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야 하며, 프레임의 중요도와 입장의 다양성에 따라 균형있게 할당되어야 한다. 또한 Q진술문은 특정한 편향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평등하게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셋째, 추출된 진술문에 대하여 유의미한 주관성을 가진 적절한 P셋이 선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갈등상황에서 주요 이해관계자가 P셋으로 선정되었는지,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며, 적절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공공갈등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프레임 연구와 Q방법론을 결합하여 활용하기를 제안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 인간의 주관성을 탐구하는 두 개의 방법론은 이론적으로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방법론적으로 서로 보완할 수 있다. 두 개의 방법론의 결합은 갈등상황에서 이해당사자의 속내를 파악하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갈등연구의 관점에서 프레임 연구와 Q방법론을 결합하는 탐색적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실제 갈등사례를 통해 두 개의 방법론을 결합하여, 실제 이론적·방법론적 보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결합한 방법론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4A01036743).

References

- Brewer, G. A., S. C. Selden, and R. L. I. Facer. 2000. Individual Conception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0(3): 254-264.
- Brown, S. R. 1980.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Brown, S. R. 1993. A Primer on Q Methodology. *Operant Subjectivity*. 16(3/4): 91-138.
- Carpenter, S. L. and W. J. D. Kennedy. 1988. *Managing Public Disputes: A Practical Guide to Handling Conflict and Reaching Agreement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Cho, Kyung Hoon, Sun Woo Lee, and Hyung Joon Park. 2015. Research for the Improvement of Conflict Assessment: Focusing on Diversity of Stakeholders.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6(2): 1-22.
- Deutsch, M. 1973. *The Resolution of Conflict: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Processes*.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Dewulf, A., B. Gray, R. Lewicki, L. Putnam, N. Aarts, R. Bouwen, and C. Van Woerkum. 2009. Disentangling Approaches to Framing: Mapping the Terrain. *Human Relations*. 69(2): 155-193.
- Dukes, E. Franklin. 1996. *Resolving Public Conflict: Transforming Community and Governance*. U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Durning, D. 1999. The Transition from Traditional to Postpositivist Policy Analysis: A Role for Q-methodology.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The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ublic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8(3): 389-410.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Harvard University Press.
- Golec, A. and C. M. Federico. 2004. Understanding Responses to Political Conflict: Interactive Effects of the Need for Closure and Salient Conflict Schem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6): 750-762.
- Ha, Hye Young. 2009. Trends and Issues of Public Conflict Researches in Korea.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2): 163-186.
- Ha, Hye Young. 2018. Research Trends Analyses on Local Governance and Conflicts Management: Focused on the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30(1): 1-26.
- Hammond, K. R. 1996. *Human Judgment and Social Policy: Irreducible Uncertainty, Inevitable Error, Unavoidable In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ung, Yong Duck. 2010. Introduction to Studies on Public Conflicts and Policy Coordination.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8(4): 1-30.
- Kang, Ji-Sun and Heung Suk Choi. 2018. Frame Analysis of Conflict over Community Support Programs in Paldang Water-source Management Area: Comparison of Perception Frames between Local Residents and Public Servant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30(2): 273-305.
- Kaufman, S. and J. Smith. 1999. Framing and Reframing in Land Use Change Conflicts.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16(2): 164-180.
- Kaufman, S., M. Elliott, and D. Shmueli. 2003. Frames, Framing and Reframing. *Beyond Intractability*. 1(September): 1-8.
- Kim, Heung Kyu. *Q Methodology: Philosophy, Theories, Analysis, and Application*. Seoul: Communication Books.
- Kim, Ji Soo. 2015. *Understanding Conflict Frames of Stakeholder Regarding Nuclear Energy Policy*. Ph. D.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Kim, Soon Eun. 2010.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Issues of Q Methodology.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4): 1-25.
- Kim, Ye Rim, Da Hee Lim, and Sun Woo Lee. 2019. Analysis on the Social Conflict Research Trends in Korea: Focusing on the Social Science Journal Articles.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33(2): 237-263.
- Korean Society for Educational Evaluation and Korea Center for Education Evaluation. 2004. *Educational Evaluation Thesaurus*. Seoul: Hakjisa.
- Lee, Sun Woo. 2011. Conditions for Effective Conflict Mediation: Lessons from Field Experience.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20(3): 87-106.
- Lewicki, R., B. Gray, and M. Elliott. 2003. *Making Sense of Intractable Environmental Conflicts: Concepts and Cases*.

- Washington, DC: Island Press.
- Lim, Dong Jin. 2011. A Study on the Current Conditions of Public Conflict Management and the Factors of Conflict Resolution.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45(2): 291-318.
- Rein, M. and D. Schön. 1994. *Frame Reflection: Toward the Resolution of Intractable Policy Controversies*. New York: Basic Book.
- Risher, R. and W. L. Ury. 1981. *Getting to Yes*. UK: Penguin Group.
- Schmidt, S. M. and T. A. Kochan. 1972. Conflict: Toward Conceptual Clarit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7(3): 359-370.
- Shim, Jun Seop. 2011. Analysis of Conflict Frames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20(2): 183-212.
- Shim, Jun Seop. 2012. Comparison of Conflict Frames between Local Residents and Bureaucrats over Construction of the Jeju Naval Bas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0(4): 221-249.
- Sim, Jun Seop and Ji Soo Kim. 2011. Applicability of Frame Analysis in Conflict Research: A Literature Review. *Chung-A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5(3): 29-64.
- Stephenson, W. 1935. Technique of Factor Analysis. *Nature*. 136: 297.
- Stephenson, W. 1953. *The Study of Behavior: Q-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atts, S. and P. Stenner. 2005. Doing Q Methodology: Theory, Method and Interpretation.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2(1): 67-91.
- Yun, Sun Jin and Dong Ha Lee. 2010. Agenda Setting and Frame of TV News about 4 Major Rivers Project in Korea. *ECO*. 14(1): 7-62.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강지선, 최홍석. 2018.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갈등의 프레임 분석-지역주민과 공무원 간의 인식 프레임 비교. *한국행정논집*. 30(2): 273-305.
- 김순은. 2010. Q 방법론의 이론과 철학.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1-25.
- 김예린, 임다희, 이선우. 2019. 한국의 갈등관련 연구경향 분석: 사회과학분야의 주요 학술지 수록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3(2): 237-263.
- 김지수. 2015. 원자력 에너지 정책 갈등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프레임 분석: 원전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홍규. 2008. Q 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심준섭, 김지수. 2011. 갈등연구에서 프레임 분석의 적용가능성: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5(3): 29-64.
- 심준섭. 2011. 언어네트워크분석 기법을 활용한 갈등 프레임의 분석. *한국행정연구*. 20(2): 183-212.
- 심준섭. 2012.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갈등 프레임 비교분석. *행정논총*. 50(4): 221-249.
- 윤순진, 이동하. 2010. 4대강 사업에 대한 TV 뉴스의 의제 설정과 프레임. *환경사회학연구*. 14(1): 7-62.
- 이선우. 2011. 원활한 갈등조정을 위한 필요조건: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한국정책학회보*. 20(3): 87-106.
- 임동진. 2011. 공공갈등관리의 실태 및 갈등해결 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45(2): 291-318.
- 정용덕. 2010. 공공갈등과 정책조정 연구. *행정논총*. 48(4): 1-30.
- 조경훈, 이선우, 박형준. 2015. 갈등영향분석의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 이해관계자 인식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2): 1-22.
- 하혜영. 2009. 공공갈등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 163-186.
- 하혜영. 2018. 지방거버넌스 및 갈등관리 연구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0(1): 1-26.
- 한국교육평가학회, 한국교육평가센터. 2004. *교육평가 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Received: Jul. 7, 2020 / Revised: Jul. 27, 2020 / Accepted: Jul. 27, 2020

공공갈등 연구에서의 프레임 연구와 Q방법론의 결합

국문초록 공공갈등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는 복잡해지고 첨예해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힘에 의존한 갈등 해결에서 벗어나 당사자 간 합의와 협상을 통한 갈등 해결이 주목받고 있다.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갈등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갈등상황의 객관적인 조건뿐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주관성에 관한 이해와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관성을 탐색하는 방법론인 프레임 연구와 Q방법론이 공공갈등연구에서 결합할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프레임 연구와 Q방법론은 이론적으로 결합 가능하며, 방법론적으로 상호보완적 성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갈등 연구에 있어서 인간의 주관성을 탐구할 때 프레임 연구와 Q방법론을 결합하여 활용하면 보다 완비된 연구가 가능함을 결론으로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탐색적으로 인간의 주관적 생각을 토대로 공공갈등 현상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제어 : 공공갈등 연구, 프레임 연구, Q방법론

Profiles **Jonghwan Eun** : He is a full-time researcher in Research Institute for Coexistence and Collaboration at th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Dr. Eun's research interests focus on the study of the philosophy of public administration, including local governments, and the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His recent work on these topics includes studies of machine-learning and rational choice theor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nflict management, integrity survey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perception types in the budget deliberation(jo.eun3299@gmail.com).

Eun Yung Cho : She received his Ph.D. from KyungHee University, Korea in 2019. She is a full-time research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Coexistence and Collaboration at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in which he has research about public conflict since 2019. Her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is public conflict, public consultation(deliberation) and consensus building. Nowadays her research based on desgin of experiments apply on policy process(choeunyung@gmail.com).